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3.3 개선 모델을 위한 공리
1. 서론	4.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2. 현대 민주주의시스템 분석	4.1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구조
2.1 현대 민주주의 발전	4.2 민주주의 모델 운용방안
2.2 민주주의 문제 분석	4.3 민주주의 모델 구현방안
3. 새로운 민주주의 요건	5. 토의 및 과제
3.1 서비스본질 충실성	References
3.2 새로운 민주주의의 충분조건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화쟁태극, 서비스본질, 도덕성

접수일(2021년 12월 5일), 수정일(1차:2022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0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가장 바람직한 정치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많은 국가에서 최선의 정치서비스시스템으로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 등에서 민주주의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또 과거 절대 군주제 왕정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전반에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으로 수정자본주의가 개발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듯이, 21세기에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민주주의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수정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빈부격차, 실업과 공황, 독점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수정민주주의는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의 비민주성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로 시작된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은 이소노미아(isonomia)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장들이 자유인이 되어 공동체인 폴리스로 나와서 각자 모두가 동등한(isos) 자격으로 함께 공동체를 운영(nomia)하는 것이 이소노미아다. 가정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자유인들이,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신들을 통치하는 법률을 정하고, 그 법률을 자신들이 스스로 지키는 시스템이 이소노미아인 것이다. 즉 이소노미아는 경제 문제가 해결된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가정경제 문제 해결 여부나 경제적 이익추구 욕망 관련 덕성 여부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절대 평등성을 구현한 시스템인 것이다.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덕성

요건을 주권자나 대리인(공직자)의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대중민주주의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구조가 되었다. 즉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인 공직자는 선동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인간 본성인 이기심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세기 전반 바이마르공화국의 총리로서 대중의 지지를 통해 공화정을 종식시킨 히틀러를 비롯하여 21세기에도 대중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유사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모든 국민이 주권자 자격과 대리인(공직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현대 정신인 평등성을 구현한 장점이 큰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많은 문제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인 이소노미아를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는 수정민주주의를 도출하는 연구다.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다. 인류사회를 장기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대 민주주의 이소노미아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재산 유무와 관계없는 절대적 평등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평등권 훼손 없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유와 평등이 중심 가치인 민주주의 시스템이지만, 자유권과 평등권에 비례하는 만큼의 주권자와 공직 대리인의 의무에 대한 헌법 및 법률과 시민 교육 강화 방안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인류의 보다 나은 민주주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거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로 민주주의가 탄생했을 때는, 가정경제(oikonomia)가 해결된 사람들이 공적인 공간에서 경제 이슈와 무관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상황이었고(Held, 2007), 또한 폴리스의 규모가 매우 작아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상황이었고,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 현안이 현대사회보다 매우 단순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제의 보통선거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인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이 투표권을 가지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Aristoteles, 2020)

현대 거대 국가에서의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소규모 직접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크게 다른 복잡성을 가진다. 대리인이 주권자 대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기독교 종교개혁시에 장 칼뱅이 ‘인간은 지독한 이기심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가정을 한 것이 바른 분석일 수 있다(Ham, 2020). 지독한 이기심을 가진 인간이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서비스 활동으로서의 정치서비스의 본질로 다시 회귀하여 바람직한 민주주의 서비스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 <Fig.1-1>과 같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공통상상과 공통철학인 서비스주의를 반영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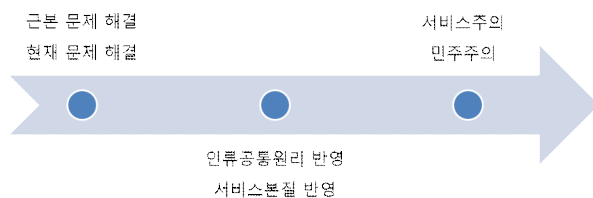


Fig.1-1. A Process of New Democracy Modeling

제 2 장에서는 고대 직접 민주주의로부터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로의 발전 과정과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민주주의 시스템 본래의 문제와 현대 대중민주주의로 인한 문제를 모두 분석한다.

제 3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조건에 대해 제시한다. 서비스로서의 정치서비스는 서비스 본질에 충실해야 하며, 민주주의가 장기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인류보편가치를 민주주의 시스템에 도입해야 한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서비스본질이 반영된 시스템이므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명명한다(Kim, 2021a; 2021b; 2021c).

제 4 장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조를 제시한다.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인간 본성에 내재된 이기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도움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민주주의 모델 구현방안도 제시한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한다.

2. 현대 민주주의시스템 분석

2.1 현대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문제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뚜렷한 통찰이 있었다. 플라톤은 국가(Politeia)에서 ‘민주제 국가에서는 자유를 가장 바람직한 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자유가 지나쳐서 가혹하고 야만적인 정체인 참주제로 이행된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의 혼에는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공존하는데, 본래는 선한 부분이 크지만, 참주 등에 의해 악한 부분이 크게 키워진다고 하였다. 민주제 국가에서는 자유가 만연하여 가정과 사회가 질서를 잃을 것으로 보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하지 않고, 학생은 교사를 무시하고, 교사는 학생이 무서워 비위를 맞출 것’이며, ‘시민과 거류민과 외국인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어질 것이며,

시민들의 혼은 몹시 민감해져서 누가 조금이라도 예속시키려 하면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법률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다' 고 하였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정반대 방향으로 역전되기 마련이라 정체의 경우도, 민주제의 지나친 자유가 참주제라는 지나친 예속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제 국가의 구성원은 세부류로 나뉘는데, 수벌의 족속(게으르고 낭비적인 인간 족속), 부자, 민중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수벌의 족속은 건설적인 생산활동이 없는 악당들인데, 이들 가운데 가장 사나운 자들은 말과 행동을 도맡고, 다른 자들은 연단을 둘러싸고 웅성거리며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뇌주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대부분은 자기들이 차지하지만, 그 일부를 민중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민중은 '어떤 사람이 국정을 맡으려 해도 그의 경력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며 대중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며', 민중은 마음의 눈으로 인간의 성격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가 과시하는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어 그러한 인간을 지도자로 선출하여 독재자가 되도록 하고 자신들은 그의 노예가 되어 간다는 것이다(Plato, 2019).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Politika)에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을 국외로 잠시 추방하는 도편제도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평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평등하게 올바르게' 것 이란 국가 전체의 이익과 시민들의 공동 이익에 연관되는 것이며, 시민이란 '미덕을 추구하는 삶을 위해 자진하여 지배하고 지배받을 수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치에서의 '좋은'은 정의이며, 그것은 공동체의 이익이며, 평등이 정의라고 하였다. (Aristoteles, 2020). 이렇게 평등을 우선적인 선으로 존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플라톤이 언급한 수벌 족과 민중의 공통 이해관계에 의해 사회 동력을 상

실하게 하고 사회를 위협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내재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대체로 상반되는 두 가치를 모두 존중하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다. 참정에 대한 평등권을 철저히 보장해주면서 현대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인류사회의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다. 가정경제 문제가 해결된 성인 가장들이 주권자나 공직 후보자가 되어 직접 토론하며 운영하던 고대 민주주의에 비해 크게 발전된 평등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의제 대중민주주의는 플라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리인 위험도 등이 크게 높아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민주주의에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현대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경제적 필요가 해결되지 않은 유권자나 공직자가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경제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된 유권자나 공직자도 장 칼뱅식의 이기심이 작동되어 공동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권리행사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플라톤식 표현에 의한 수벌족들은 과도한 이기심을 발휘하며 대중의 이기심을 쉽게 악용하여 독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의권을 부여받아 선출된 공직자 행위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대리해야 하는 집단의 의견이나 이익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이나 신념에 의해 대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선출되면 임기 동안은 견제받지 않고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리인 공직자의 권한이 클수록 대리인 위험도가 증가하는 구조다.

세 번째로 대리인과 유권자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현대 대중 민주주의 국가는 규모가 커지

고 경제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생업에 바쁜 시민들의 정치 행정 참여 비용이 높아져서 참여 빈도와 참여 밀도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대리인들의 힘은 더욱 증대된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대리인의 작은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시민들은 매우 큰 힘을 써야 하는 등 상호 불균형이 심화된다. 시민들의 참여가 축소되면서 대리인 집단은 정치행정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는 더욱 저하된다. 대리인과 주권자 간의 힘의 불균형이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Kim, 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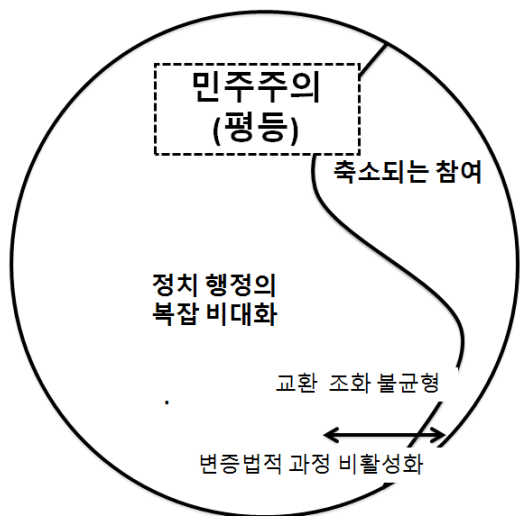


Fig.2-1. A Current Democracy Model

또한 현대 자본주의와 함께 운영되는 대다수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시스템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면 아래 그림 <Fig.2-2>와 같이 정신 권력이 쇠퇴하고 물질 권력이 큰 힘을 가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자본의 힘이 경제 부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법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권력의 1극 중심성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Kim, 2021b).

따라서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는 시간이 경과할수

록 대리인 집단이 권력집단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해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플라톤의 논리와 같이 악당인 대리인 집단에 의한 독재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통찰대로 민주주의시스템은 대리인 선출 시점에서만 시민이 주인이 되고, 선출 이후는 곧 그들의 노예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Tocqueville,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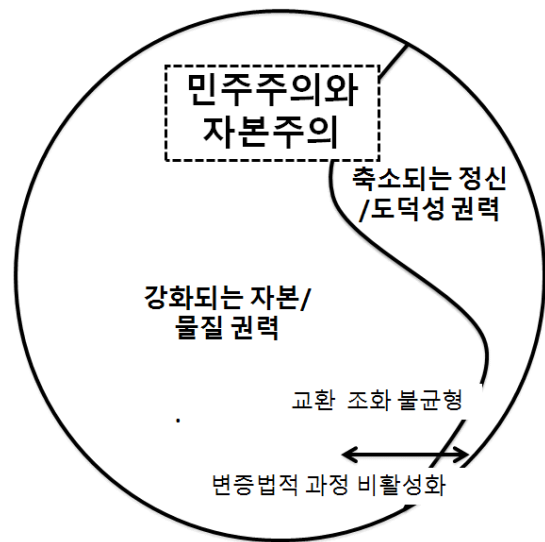


Fig.2-2. Democracy and Capitalism Model

아래에서 현대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 분석을 제시한다.

2.2 민주주의 문제 분석

민주주의는 인간이 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가정이 시스템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그런데 현대 대의제 대중 민주주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 위에 구축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동양의 대표적인 이론은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다. 맹자는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고 하였

다. 4단(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사람에게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며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4단을 확충하면 성인이 된다고 보았다. 나쁜 인간들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고 이 4단을 확충하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한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인간이 선하게 됨은 인위의 덕분이다. 배워서 얻을 수 있고 도모하여 성취할 수 있는 인위적인 것을 위(偽)라고 한다. 위는 문화와 예를 통한 소양과 품위를 뜻한다. 인위를 가하지 않으면 본성은 저절로 아름다워질 수 없다' 고 성악설 이론을 제시하였다. 순자는 성악편에서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바,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쟁탈전이 발생하고 사양지심은 없어진다. 날 때부터 질투와 증오심이 있는 바, 이 본성을 좇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비방하는 행위가 생기고 충직과 신실의 도덕은 없어진다. 인간의 본성은 악함이 분명하고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의 덕분이다' 라고 하였다(Pung, 2017). 맹자의 성선설도 그 본질은 인간이 4단을 확충하려는 고난이도의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인간상은 악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동일하게 현실세계의 대다수 인간은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마천도 사기의 화식열전을 저술하며 '천하 사람들이 즐겁게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며, 천하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이다' 라고 인간의 삶을 정의하였다(Samachun, 2017). 인간은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며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 삶의 근본 동력이라는 것이다.

서양 사상에서의 인간에 대한 가정도 동양과 유사하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둡다' 고 인간 일반 속성을 정의하였다. '인간은 악하기 때

문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은혜를 내팽개쳐 버린다' 고 하였다(Machiavelli, 2005). 인간에 내재하는 이기심의 정도가 매우 깊고 크다는 분석인 것이다.

서양 개신교의 대표적 사상가인 장 칼뱅은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개혁교회를 정립하고 근대 서양 역사의 틀을 만들었다. 그는 '우리는 인간이 너무나 변태적이고 삐뚤어진 본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만일 자신들을 제어하는 것이 없을 경우 자기 이웃의 눈을 다 뽑아 버리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안다' 고 했다. 그는 이런 인간 본성관에 바탕을 두고 사회질서체계와 개혁교회체계를 설계하였다. 그래서 성도(saint)라는 새로운 정치적 인간형이 탄생하였다. 칼뱅주의 성도는 공적인 책임과 이념에 대한 헌신으로 무장한 채 규율을 내재화한 존재이며 가족의 틀을 벗어나 자신과 아무런 혈연 관계도 없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Ham, 2020).

종합하면 인간의 이기심 정도는 매우 크고 깊으며, 큰 이기심 통제를 위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치와 운용이 미흡하면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시스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유권자의 이기심 문제다. 유권자는 공동체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하지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개인의 이익을 선택하여 공동체가 파멸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무상복지가 개인에게는 큰 이익이지만 공동체는 파멸할 수 있다. 공동체 행정 대리인인 공직자를 선출할 때도 공동체에 해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대리인 공직자의 이기심 문제다. 선출과정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

지만, 선출된 후에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경제적 이익이나 상위 공직 진출을 위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승자독식 구조가 문제다. 다수결에 의해 단 1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공직자가 되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기심 본성에 의해 자신 또는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의 이익을 위한 정치 행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민주주의시스템은 인간의 이기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3권 분립, 권력 분점, 견제시스템을 설계하여 활용해 왔다. 행정, 입법, 사법 등으로 3권이 분립되어 국가가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선출직 확대 등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인간의 이기심 문제에 대한 필요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입법, 사법, 행정 권력 간의 이기심에 의한 담합이 있으면 평등하지 못한 법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초기에 크게 성공했던 이유는 선출직 비중이 크고, 지방 자치 중심이고, 3권 분립이 잘 지켜졌던 이유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가정이 보다 현실적이었던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미국 건국자들은 청교도들이었고, 이들은 국가 행정과 종교를 결합하여 미국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즉 칼뱅주의 개신교가 미국 국가 운영에 깊이 개입된 것이다. 칼뱅의 인간에 대한 가정 위에 세운 교회제도와 인간 행동 양식이 민주주의 운영에도 깊이 반영된 것이다. 동양식 표현으로는 인간의 덕성에 기반을 두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운영된 것이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3연임을 하지 않고 스스로 사퇴하여 후임 대통령들이 재임 전통을 수백년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자신의 묘비에 대통령 경력을 기록하기보다는 독립선언서 초안 작성자임을 기록하게 한 것은 초기 미국 지도자들의 덕성 수준을 잘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권력보다 덕성을 존중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가가 초기 미국과 같이 ‘인간에 대한 가정이 인간사회의 현실과 부합하는 특정 종교에 의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 부과되는 이상적인 상황’이 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민주주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

이상 논의를 토대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기울어진 태극 그림 4개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재 민주주의시스템은 인간 본성에 대한 비현실적인 인식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현대 민주주의 인간상은 성선설과 이성적 인간상에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즉 성악설과 비이성적 인간상을 일부 고려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가 매우 약한 것이다. 예를 들어 3권 분립은 특정 권력의 독점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수의 대리인들이 각각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 대리인들이 담합을 하여 이해관계를 공유할 때는 이들 집단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아래 그림 <Fig.2-3>과 같이 현 민주주의 제도가 인간을 대체로 선한 존재, 상당히 이성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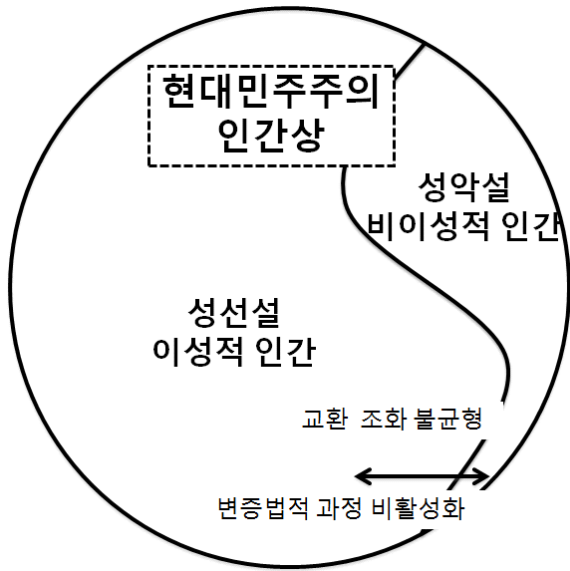


Fig.2-3. Human Model on Modern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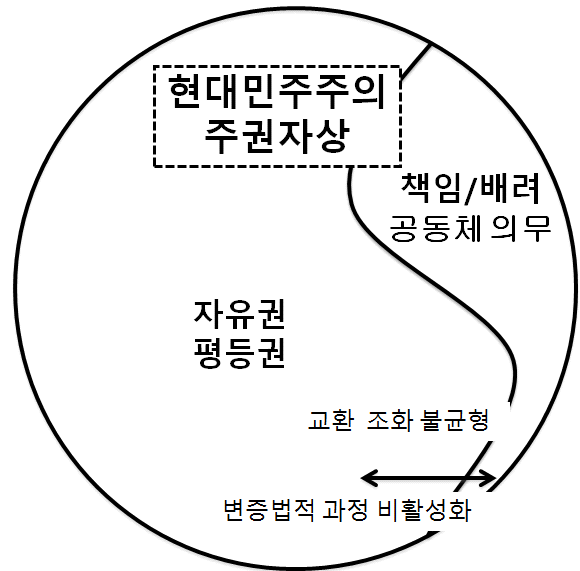


Fig.2-4. A Sovereign Model on Democracy

두 번째로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성 부과보다 크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장인 제2장의 총 30개 조항 중에서 28개 조항이 자유권 평등권 등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고, 단 2개 조항만이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2개 조항마저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단서에 의해 한정적인 의무로 요구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즉 법률에 의해 납세나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 국민들이 책임 의무 부담 없이 자유권과 평등권 등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가라면, 이러한 공동체는 누군가가 큰 책임을 부담해야 유지될 수 있으므로, 국민 개인들 간에 권리와 의무 불균형이 클 수 있다. 또한 의무 부담이 적을 경우 자유권과 평등권이 남용될 위험도 있다. 아래 그림 <Fig.2-4>와 같이 현 민주주의 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권리를 보다 강조하고 있어, 공동체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은 법치와 도덕치 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권력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오직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만 통치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는 도덕이나 양심에 의한 정치행정보다는 법률 조항과 개별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이 된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세네카가 로마의 법제도에 대해 ‘법의 규칙보다도 의무의 규칙의 편이 얼마나 넓은 것인가! 책임감, 인간성, 관용, 공정, 성실 - 이들 모두는 12표법 외에 있는 것이지만 이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가’ 라고 지적하였듯이(Radbruch, 1985), 법률과 규정의 본질적 한계는 뚜렷하고, 내용과 운용 모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아래 그림 <Fig.2-5>와 같이 현 민주주의 제도는 법치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법치의 영역 밖에 있을 수 있는데 법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한 영역에서 도덕과 상식에 의한 사회운용이 필요한데, 그 중요성이 소홀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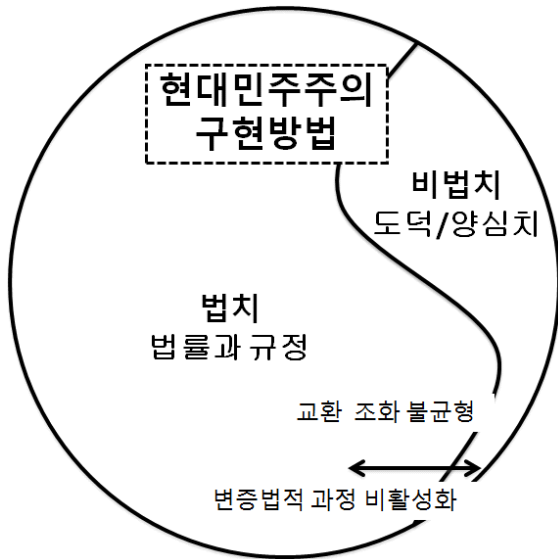


Fig.2-5. Implementation Model on Democ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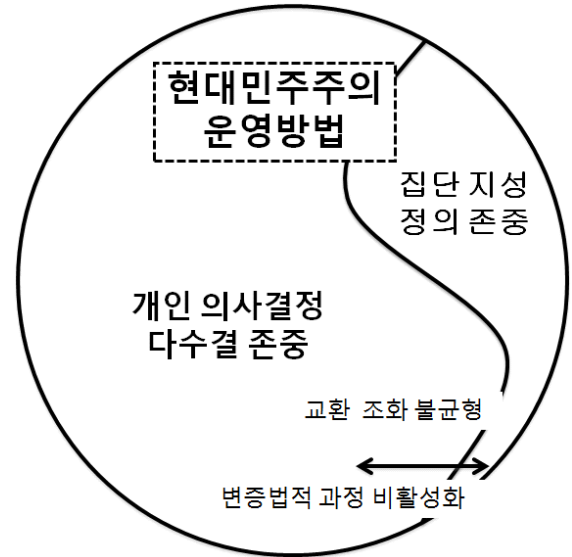


Fig.2-6. Operation Model on Democracy

네 번째로 현대 민주주의시스템은 인간 개인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어떤 분야에서 개별 인간들의 판단력이 매우 뛰어나다 해도 모든 분야에서 뛰어날 수는 없고, 인간의 이기적 본성과 비이성적 속성을 고려하면 개별 인간의 판단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큰 힘이 있는 소수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위협하거나 또는 그들의 이익에 소구하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수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구나 자신의 더 큰 이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다. 51% 대중의 이익을 빙자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49%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다. 개인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다수결 민주주의는 상식과 정의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적법한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아래 그림 <Fig.2-6>과 같이 상식과 도덕의 지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수결 의사결정이라도 정의와 도덕에 위배되어 공동체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의사결정은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덕과 정의를 위반하는 의사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아래에서 제시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서비스 시스템이므로, 서비스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서비스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민주주의시스템은 공동체를 위한 정치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서비스본질에 충실하면서, 본 절에서 분석된 현대 민주주의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의 요건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을 도출한다.

3. 새로운 민주주의 요건

새로운 민주주의의 첫 번째 필요조건은 서비스본질에의 충실성이다. 이는 이소노미아의 본질과 부합하므로 함께 논의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인류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려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인류 보편원리에 충실할 때 인류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3.1 서비스본질 충실성 (이소노미아 본질 충실성)

민주주의는 정치서비스시스템이다. 서비스의 본질은 관계성, 쌍방향성, 수평성, 조화성으로 요약된다. 관계에 의해 서비스가 성립하며, 서비스하는 자와 서비스 받는 자 간의 수평성과 쌍방향성이 핵심 요건이며, 서비스시스템은 조화성 특성을 가질 때 지속가능하다(Kim, 2018).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함께 법률을 제정하고, 함께 법률을 지키는 시스템이므로 서비스본질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본질에 충실하면 이소노미아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는 관계를 통해 가치가 발생하는데, 정치서비스도 주권자와 대리인의 권리/의무 관계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주권자들과 대리인들간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가치가 창출된다. 주권자가 대리인의 서비스에 깊이 관계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주권자에게 무관심하면, 정치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 쌍방향성도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다. 쌍방향성은 인간세계와 자연세계의 본질이기도 하다. 서비스하는 사람의 행위만큼, 서비스받는 사람으로부터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는 쌍방향성이 성립한다. 정치서비스에서 정치인(대리인)이 진심을 다해 국가사회발전과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활동을 수행하면, 주권자도 더 열심히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게 되고 장기적인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거획 희생도 감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서비스는 수평적이다. 서비스하는 자와 서비스받는 자 간의 양쪽의 힘이 다르면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므로 서비스가 공급 또는 소비될 수 없다. 수평성이 흔들리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지속할 수가 없다. 정치서비스는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수평성이 확보되어야 지속가능하다. 서비스의 네 번째 본질은 조화성이다. 서비스는 하나의 시스템이므로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다. 서비스시스템은 고객과 공급자, 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는 제품과 기술, 외부 시스템과 내부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심가치, 시스템에 공유되는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이 모든 요소가 전체적으로 조화되어야 서비스시스템이 성과를 발휘한다. 정치서비스도 플랫폼과 함께 주권자와 대리인 간의 조화성, 주권자들 간의 조화성, 대리인들 간의 조화성이 필수적이다(Kim, 2017).

정치서비스의 목표는 국가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지속발전이다. 수단은 법률과 구성원의 참여다. 법과 제도가 서비스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 주권자와 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이어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각 기능 수행시에 주권자와 대리인의 쌍방향성과 수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본질 기반의 정치서비스다. 대리인 선출과정에서도 쌍방향성과 수평성이 필요하다. 관계성, 쌍방향성, 수평성 확보를 위해, 선거 단위를 작게 나누고, 여러 단계를 거쳐 선출직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리인 선출에 서비스본질 반영이 필요하다. 대리인 업무수행과정상의 주권자 참여 활성화는 서비스본질 반영의 중심이 된다. 관계성, 쌍방향성, 수평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참여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조화성 본질 구현을 위해서는 주권자와 대리인 모두 서비스문화 확산이 핵심이다. 대리인(공직자)의 경우 필수 덕목이 신뢰성, 투명성, 자기희생이다. 자신이 아닌 주권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쌍방향성 특성에 의해, 주권자도 신뢰성, 투명성, 자기희생 의지가 필요하다. 주권자가 대리인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소환하는 등의 권한을 신뢰받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자기희생을 수반하면서 적절히 행사하는 문화가 서비스 문화다(Kim, 2017).

선행 연구에서 정치서비스로서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바람직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도출되었다. 우선 서비스본질에 기반을 둔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철학은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은 화

쟁태극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Kim, 2021b). 개인 존중 철학과 공동체 존중 철학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다. 두 힘을 모두 중시하되 두 힘 간의 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사회 전체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유권자와 대리인(공직자)들에게도 그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본질 기반의 정치행정인간 모델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정치행정인간이다(Kim, 2021b).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발휘하면서 권력지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과 또 하나의 내면의 본성인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타인을 포용하며 공동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인간형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치행정인간형은 아래 그림 <Fig. 3-2>와 같은 태극구조의 화쟁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Kim, 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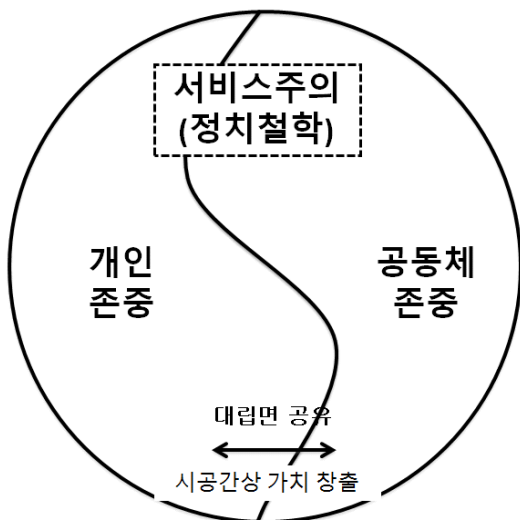


Fig. 3-1 The Servicium on Political Philoso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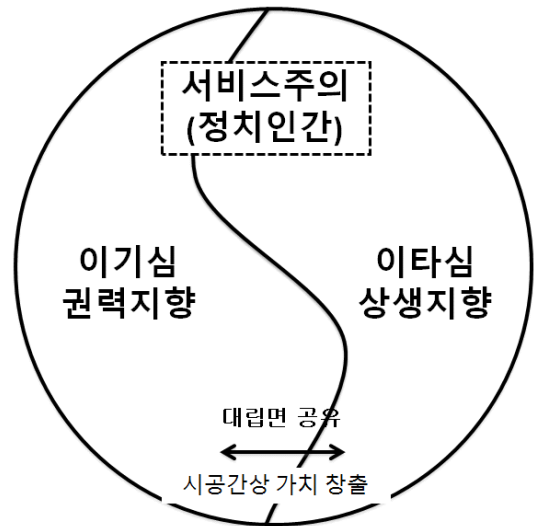


Fig. 3-2 The Servicium on Homo Politicus

서비스본질 기반의 정치행정방법은 직접참여비용 절감과 대리위임비용 절감의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모델이다. 직접참여하면 많은 이슈에 개인의 의사가 개진되어 정치행정활동이 프락시스가 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에게는 큰 참여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위임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대리하게 하면 개인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대리인이 위임 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본질에 의해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가며,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치행정방법 모델은 아래 그림 <Fig. 3-3>과 같은 태극구조의 화쟁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Kim, 2021b). 즉 위임대리비용이 커지면 직접참여를 늘려 위임대리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직접참여비용이 효과 대비하여 과도하게 커지면 위임대리시스템의 비중을 늘려 균형을 유지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 초기에는 직접참여 비용보다 직접참여 효과가 크므로 직접참여가 중심이 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대리인들이 양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 역할을 대리하게 되므로 위임대리가 중심

이 된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는 위임대리가 중심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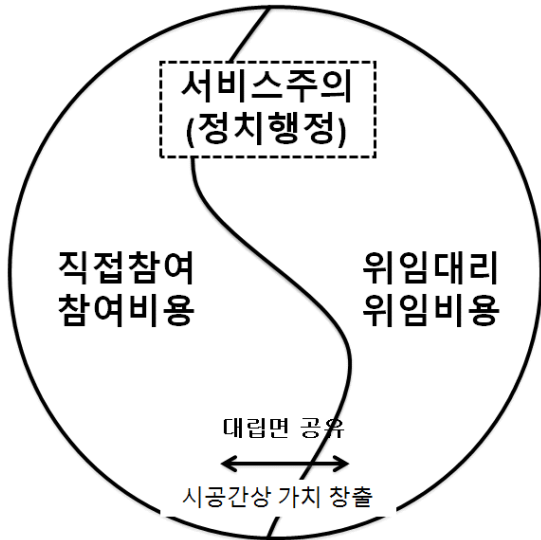


Fig. 3-3 The Servicism on Participation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본질 반영에 추가하여 이소노미아의 본질에 충실한 민주주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자가 된다. 고대 그리스에서 경제 문제가 해결된 자유인이 주권자가 되어 정치에 참여하던 이소노미아와는 달리,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주권자를 제한하기 어렵다. 현대의 평등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적 결핍 상황이나 과도한 이익 추구 욕망은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큰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욕망과 과도한 이기심의 효과적 제어 방법은 서비스본질의 활용이다.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수평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생에 의해서도, 운에 의해서도 차등화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차등화될 수 있는 덕성 요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리인의 자격도 그 권한에 부합하는 수준의 대리인 의무 요구로 수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서비스본질에 충실하면서, 정치서비스로서의 기본에 충실하고, 이소노미아를 현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을 제시하였다. 아래에서 인류사회를 장기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을 제시한다.

3.2 새로운 민주주의의 충분조건

민주주의가 인류사회를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정치서비스시스템이 되려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이 세상의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공통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 철학인 변증법사상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다.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Kim, 2019a; 2019b; 2019c). 이러한 공통 진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그림 <Fig. 3-4>와 같이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태극모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철학적 구조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기반이 된다(Kim, 2019a).



Fig. 3-4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도(道)가 된다.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태극모델이 현대 철학인 서비스철학의 구조다. 대립자 각각이 가치를 가지지만,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 대립과 균형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이다.

또한 공통진리의 핵심은 나선형 변증법이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다. 즉 대립자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모델이다. 세상의 운용모델을 표현하는 서비스철학은 아래 그림 <Fig. 3-5>와 같이 나선형 발전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Kim, 20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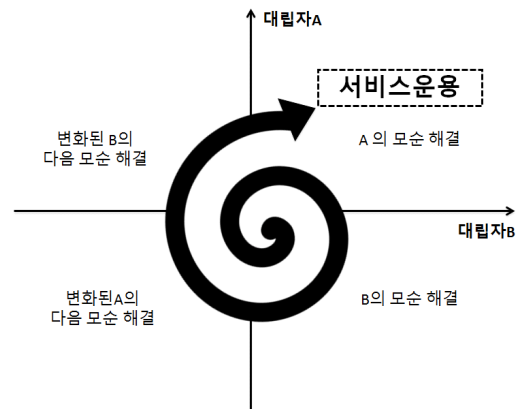


Fig. 3-5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이와 같은 서비스철학의 구조는 수천년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흘러가고 변해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서비스철학은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과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가고 있기 때문에 공통진리일 가능성이 높다(Kim, 2019b; 2019c). 일부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인류의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인류사회의 공통원리를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에 반영해야 인류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는 공통원리를 공리로 제시한다.

3.3 개선 모델을 위한 공리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이 구축될 때 민주주의와 인류사회는 장기 지속가능할 수 있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공리는 아래와 같다.

[공리 1]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한하다. 교육훈련을 통해서 통제되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 한 이기적인 권력 욕

망 추구는 계속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동물이므로 육체적 본능에 의해 행동한다. 자신을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획득 전쟁과 발전의 역사이므로 이기심은 증명 없이 필요한 공리로 성립한다(Plutarchos, 2019; Samachun, 2017; Lamprecht, 1992; Lao-Tzu, 1982; Ham, 2020).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모든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 없이 필요한 공리로 성립한다(Lao-Tzu, 1982; Pung, 2017). 유권자와 대리인, 공직자와 시민,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개인과 공동체 등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주요 대립자들이다.

[공리 3] 모든 것은 변한다. 국가사회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치않는 진리이므로, 정치서비스에서도 증명 없이 필요한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2019b; 2019c; Lee, 2010; Plutarchos, 2019).

[공리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 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Kim, 2019a).

[공리 5]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민주주의시스템에도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을 해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지러워진 책상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힘을 들여 일해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1). 민주주의 사회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Kim, 2019a).

이와 같은 공리와 민주주의로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모델이 서비스본질과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로 명명한다.

4.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본 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하여 제기한 현대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제3장에서 제시한 인류사회를 장기 지속가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로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갖춘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의 구조와 운용

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은 덕성 중심 시스템으로서,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정직 용기 희생 성실성 등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현된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된다. 주권자와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여,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한다.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데모크라시의 장점이 모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는 수정민주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4.1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구조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의 기본 구조는 공리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한 인간으로서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주권자와 주권자의 대리인인 공직자는 [공리 1]에 의해 모두 무한히 자신의 이기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공리 2]에 의해 국민과 사회 이슈 모두에는 두 대립자가 존재하며, [공리 3]에 의해 두 대립자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공리 4]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진행된다. [공리 5]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때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두 대립자 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이 기반이 되며, 두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다.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진행된다. 철저한 균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어려우므로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반대로 기울고, 또 다시 반대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다른 반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동태적 균형 구조이다.

이 대립자들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이다. 우선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이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국민들의 인간 본성은 선과 악, 이성과 비이성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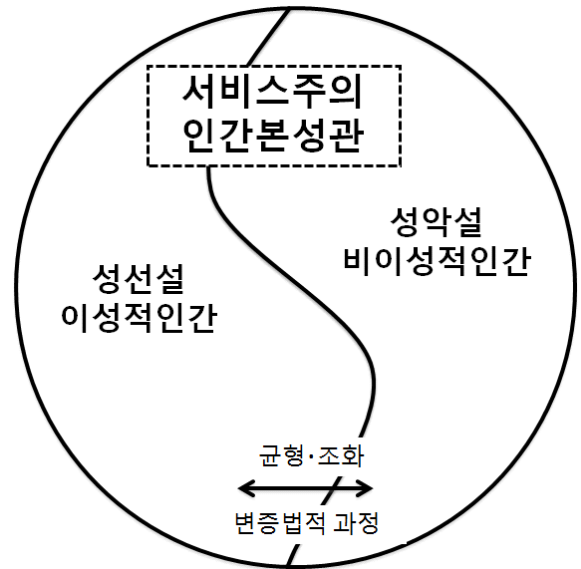


Fig. 4-1 The Human Nature on Servitism Democracy

선과 악, 이성과 비이성이 모든 국민과 모든 공직자에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 두 대립자를 철저히 고려하여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운용해야 한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또 [공리5]에 의해서 민주주의 운용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과 비이성이 공직자 사회와 일반 국민 생활에 증가하게 된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수평성과 조화성 기준에 의해 악과 비이성이 통제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된다. 덕성시스템에 의해 공직자 부패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적 자기 정화가 시작되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립자적 법제도에 의해 악과 비이성 통제 강화가 시작된다.

또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이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 자유권과 평등권 등 핵심 권리를 누리는 대가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배

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한다. 예를 들어, 자유권을 많이 누리는 국민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의무를 더 크게 이행해야 한다. 평등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과도한 자유나 과도한 평등권 주장이 자제되는 사회가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사회다.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 나의 평등과 타인의 평등이 두 대립자로서 서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리인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가 적용된다. 자신이 대리인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자신이 선출한 대리인의 행위, 특히 대리인의 이기적 행동이나 악행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므로 대리인을 선출할 때 매우 신중해지며, 최대한 이성을 발휘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대리인이 정치행정을 하는 동안에도 이기적 행동이나 악행이 행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중단시키거나 소환하는 활동의 의무를 부담한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하의 국민은 모두 자유와 평등의 크기 만큼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행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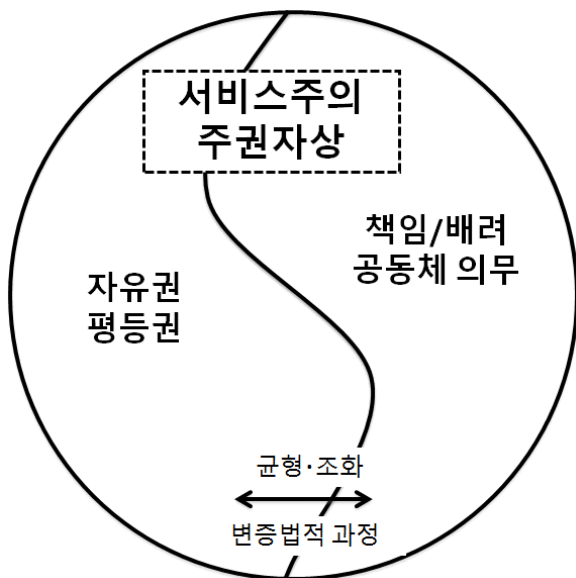


Fig. 4-2 Balancing between Right and Duty

따라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법치만으로 구현되기는 어렵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법치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은 일부에 불과하며, 많은 부분이 법의 영역 밖에 있다. 법치로 모든 것을 운영할 때는 매우 많은 법률들이 필요한데, 법률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 도덕과 양심에 의해 사회가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음을 인정하고 이들 부분은 양심과 도덕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며, 법률도 양심과 도덕의 기반 위에서 제정되고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 철학이 저변에 구축된 사회는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법치와 도덕치가 대립면을 공유하며 상호 자신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문제를 보완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태극모델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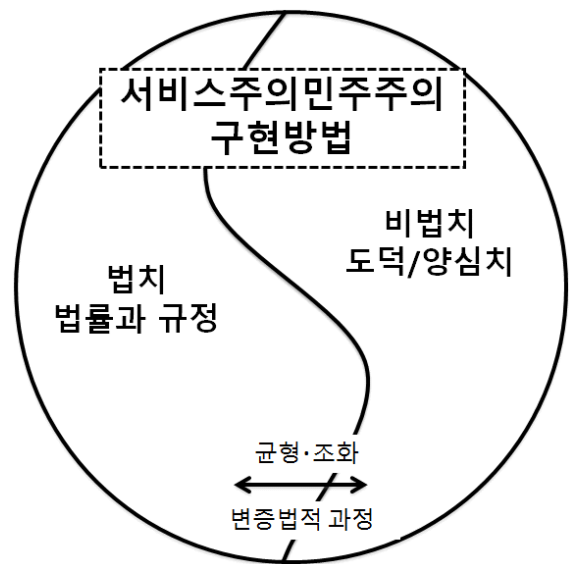


Fig. 4-3 Balancing between Rule of Law and Rule of Moral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운영방법은 기존 민주주의의 개인 결정 다수결 모델과 달리 집단지성의 정의

공정 시스템을 병행하는 모델이다.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다수가 담합하여 불의하게 소수를 약탈하거나 특정인을 파멸하게 할 수 있는 다수결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정의와 공정 시스템을 대립자로 운영하며 다수결이 정의와 공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 사회시스템을 파괴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운영방법의 구조는 아래 그림 <Fig. 4-4>와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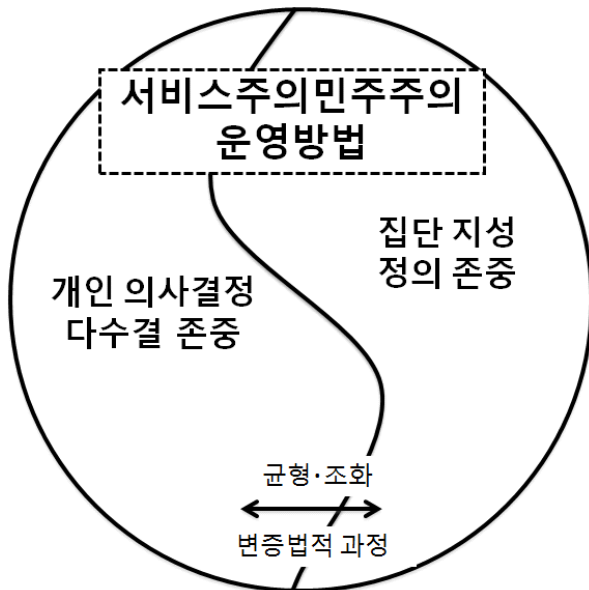


Fig. 4-4 The Operation Model of Servicicism Democracy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는 그 사상적 토대로서 성악설과 성선설이 동등하게 큰 비중을 가지는 모델이며, 주권자와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며, 법치와 도덕치가 병행되며 서로 보완하고 있는 모델이며, 개인에 의한 다수결 결과와 집단지성시스템에 의한 정의 공정 기준이 항상 동시 가동되는 모델이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서비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아래에 제시한다.

4.2 민주주의의 모델 운용방안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모델은 새로운 유권자상과 새로운 대리인상(공직자 모델), 대리인 선출 및 통제 방식 등에서 현재 민주주의와 크게 차별화된다.

먼저 주권자 모델이 달라진다.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주권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어떤 결정도 행할 수 있다.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쳤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 구조다. 더구나 공동체가 현재 개인들만의 소유가 아닌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있는 영속적인 실체라는 점에서 현재의 개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크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개인이 의사결정할 때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동시에 반영하고, 단기적 이익과 중장기적 이익, 즉 미래세대까지의 이익과 손해를 모두 반영하여 균형잡힌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화하여 운영된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유권자 자격은 덕성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 이기적인 주권 행사의 결과로 공동체가 큰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유권자가 지도록 제도화한다. 유권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무교육에서 공동체 의사결정을 훈련시키며, 선거권 연령에 도달하면 평가를 거쳐 유권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검증된다.

아래 그림 <Fig. 4-5>와 같이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의 모델의 유권자는 공동체와 개인, 단기와 중장기 관점이 철저히 균형잡힌 시민을 의미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유권자는 자격을 갖추 때까지 선거권이 제한되는 시스템이다. 국가공동체 차원의 장기적인 교육훈련 노력을 통한 덕성 중심 유권자 자격제도인 것이며,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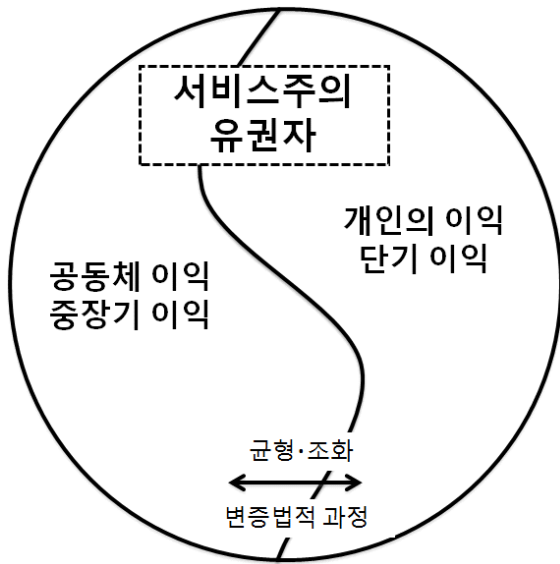


Fig. 4-5 The Owner Model on Servicism Democracy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의 대리인(공직자)상도 현대 민주주의와 크게 차별화된다.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범법자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대리인(공직자)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자유권과 평등권 보장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아래 그림 <Fig. 4-6>과 같이 대리할 대상이 가지는 권한 크기나 요구되는 능력 수준 만큼의 덕성 수준이 구비됨이 입증되어야 대리인 후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기심을 스스로 통제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대리인 후보가 될 수 있다. 어느 한 개인이 가지는 덕성의 수준은 장기간의 그의 행동과 말과 관찰자의 평가와 집단지성의 평가를 통해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집단지성을 속일 수는 없으므로, 대리인 후보들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만이 공동체 업무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동에서 해방된 사람들만이 시민의 미덕을 가진다고 하였다 (Aristoteles, 2020). 개인들은 입후보하려는 직위에

부여되는 권한의 크기만큼 능력과 덕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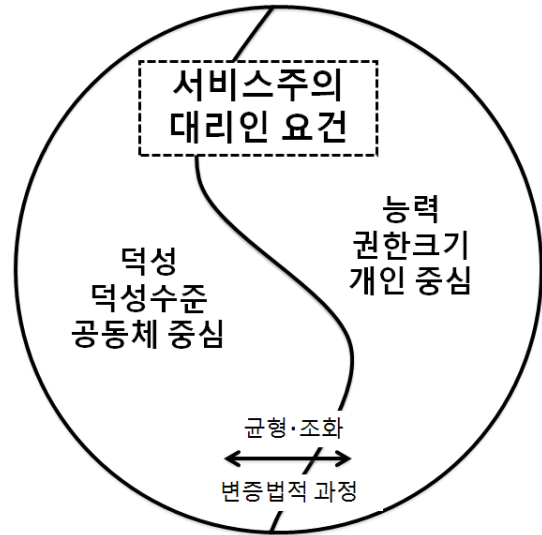


Fig. 4-6 The Candidate Model on Servicism Democracy

대리인 선출은 아래 그림 <Fig. 4-7>과 같이 현행 대중 선거 방식과 대리인 양성 스쿨내 경쟁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한다. 대리인 양성 스쿨은 오랜 기간의 교육훈련을 수행하여 공직자 후보를 양성하는데, 장기 덕성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대리인 후보자들과 일반 후보자들이 덕성과 능력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자유로운 현행 방식 만으로는 충분한 수의 대리인 후보자가 확보되기도 어렵고(스스로 부단한 노력을 장기간 해야 하므로), 장기 덕성 훈련 통과자들만으로 후보를 제한할 경우는 평등권에 크게 위배되면서 담합을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최적 시스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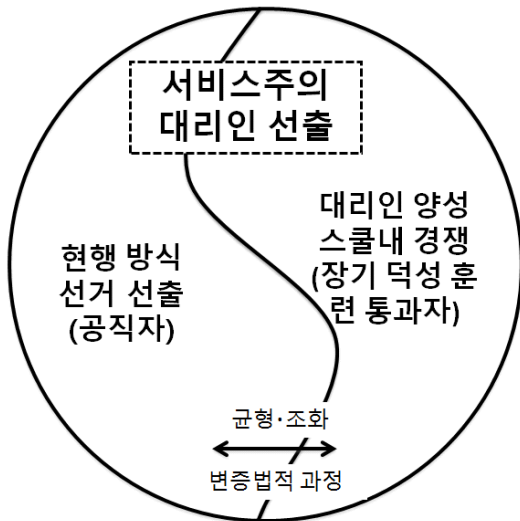


Fig. 4-7 The Public Official on Servicism Democracy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서비스철학에 의해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공동체가 절대 우위인 건괘(왼쪽 위의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개인이 절대 우위인 곤괘(오른쪽 아래의 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효, 외부 2개가 양효)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경우다. 외형적으로는 공동체 우위이지만 내면의 개인 존중이 받쳐주고 있는 리괘형 시스템이거나, 외형적으로 개인 중심이지만 내면은 공동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감괘형 시스템이 번갈아가며 민주주의운영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4.3 민주주의 모델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집단지성으로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구현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거 기록을 모두 분석한 최적 판단, 자연의 상식과 정의 원리를 반영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구현된다.

인간 본성의 이기심과 비이성성을 반영하여 주권자의 자격을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민으로 규정한다. 국가사회의 기층 문화로 덕성 우위 문화가 전제된다. 기존의 덕성 유사 개념으로 서구의 정확한 개인(The Punctual Self) 개념이나 벤저민 프랭클린의 절제, 진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겸손 등을 포함하는 13가지 자기규율 개념이나(Ham, 2021) 유교의 신독(慎獨) 개념이 있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에서의 덕성은 이들 기존 관련 요소를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 개념을 포함한다. 공동체에서의 주요 덕성은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공동체를 위해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소양이다. 자신의 몸과 재산을 바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시민이 덕성 있는 시민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공적인 영역인 폴리스에서 공동체의 가치 증진과 행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서비스였고,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가치 있는 희생은 공동체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었으므로,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은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의 뿌리문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성공시킨 초기 미국은 개신교라는 종교가 민주주의 시스템과 결합되어 덕성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구현하였다(Ham, 2020).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삶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도록 종교가 역할을 한 것이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대다수 현대 국가에서는 종교가 덕성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사회 차원의 별도 덕성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

의무교육에서 덕성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최고선 성취 욕구(arete) 등이 개인들의 중심 욕구가 되면 덕성 시스템 구현이 용이해진다. 덕성이 높은 것은 오랜 기간의 관행과 문화의 영향이므로 장기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유권자 자격을 부여하는 덕성 평가는 인간에 의한

평가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의한 평가를 병행한다. 대리인 자격 획득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덕성 중심 시스템은 서비스본질인 수평성에 충실한 시스템이며 현대 정신인 평등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소노미아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덕성 수준을 특히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하는 한 경제적 불평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공동체 결속력이 약해지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덕성 수준을 높여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대리인 시스템도 덕성시스템 기반위에서 구현된다. 대리인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덕성 문화가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리인 구조 구축이 가능하다. 과거 로마에서는 시민이라야 군인이 될 수 있고, 전투 도구는 사비로 본인이 구매해서 전쟁에 참여해야 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음에도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였듯이, 덕성기반 사회에서는 새로운 대리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주의의 대칭균형모델을 모든 부문에 구현한다. 이기심 중심 자본주의 시스템과 대립자인 희생 중심 덕성 시스템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선출직 대리인의 의무(자격)는 각 직위의 권한에 상응하는 수준의 희생이다. 이해충돌 방지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생명의 희생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서비스주의를 반영하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시스템은 아래 그림 <Fig. 4-8>과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정의결 의사결정과 인간의 이성에 의한 다수결 의사결정을 변증법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간 이성에 의한 다수결 의사결정의 한계를 객관적인 데이터와 서비스철학에 의한 정의로운 의사결정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이다. 재

판이나 선거 등 주요 의사결정, 유권자 및 대리인 후보 덕성 시험 등에 인공지능시스템을 적용한다. 판사의 판결이 관련 법률과 판례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인공지능 정의결도 법과 판례는 물론이고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학적인 판단이다. 이는 국가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결과가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해 비이성적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은 대칭성 조화성 등의 인류공통원리 및 서비스철학이 내재된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변증법적 개념을 반영하여 설계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의사결정권 일부를 인공지능에 양도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이기심이 통제되고 이상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대다수의 큰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성이 아닌 제3자(신 등)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사회의 본 모습과 동일하므로 인류사회를 장기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델이 된다. 덕성의 제1덕목이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이듯이, 인류사회를 장기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1요건은 인간이 인간이성 제일주의를 일정부분 희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아끼는 부분을 버릴 수 있는 힘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덕성 중심 시스템이 정착되면 법치만의 기존 민주주의 시스템은 덕치와 비법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발전된다. 도덕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의사결정 방식은 다수결만이 아니라 지성과 정의가 동시에 기준이 된다. 주권자는 권리 행사시에 개인의 이익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하게 되고 대리인 또한 대리할 직무의 권한과 필요한 능력 크기에 상응하는 덕성 수준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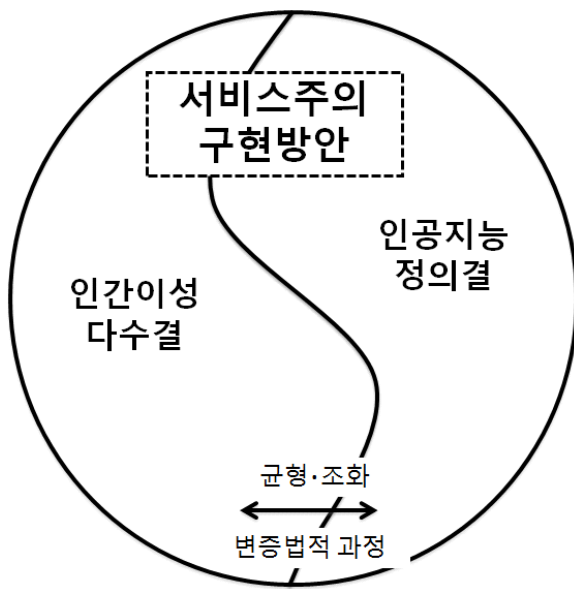


Fig. 4-8 The Serviceism Democracy Practice Model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평등권 확대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정직 용기 희생 성실성 등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데모크라시의 장점이 모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소노미아의 이소(isos, 동등)가

서비스철학의 본질이기도 하면서 인류공통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향후 덕성 중심 시스템의 내용과 활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Aristoteles(2020), Chun, B. H. Tr., POLITIKA, Soop, (아리스토텔레스(2020), 천병희 역, 정치학, 숲)
2. Ham, Jaebong (2021), What is Politics, H Press (함재봉(2021), 정치란 무엇인가?, H 프레스)
3. Ham, Jaebong (2020), Making Korean III, H Press (함재봉(2020), 한국사람 만들기 III, 친미기독교과, H 프레스)
4. Held, Klaus(2007), *Treffpunkt Platon*, Kang Seo Lee Tr., Hyohyung Publishing Co., (클라우스 헬트(2007), 지중해 철학기행: 모든 길은 플라톤으로 통한다, 이강서 역, 효형출판)
5. Kim, Hyunsoo (2021a), A Study on the Serviceism Based Societ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3 Sept. 2021, pp.75-97 (김현수(2021a), 서비스주의 사회시스템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3호, pp.75-97)
6. Kim, Hyunsoo (2021b), A Serviceism Model of the Ne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2, Jun. 2021, pp.1-19 (김현수(2021b), 서비스주의 정치행정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2호, pp.1-19)
7. Kim, Hyunsoo (2021c), A Service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1, No.1, Mar. 2021, pp.1-20 (김현수(2021c),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 연구, *서비스연구*, 제11권 제1호,

- pp.1-20)
8.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 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9.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10.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11. Kim, Hyunsoo (2018) New Management of Management, Kookmin University Press, (김현수 (2018), 경영의 신경영, 국민대학교 출판부)
 12. Kim, Hyunsoo(2017), A New Politics Service Model based on Service Science, in Proceedings of the 2017 Spring Service Science Conference, April 2017 (김현수(2017), 서비스학 기반의 정치 서비스 모델 제안, 2017 서비스사이언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17.4)
 13.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202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법제처 (2021), 대한민국 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14. Lamprecht, S. P.(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g Co., (렘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15.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16. Lee, Kidong(2010), Lecture on The Book Of Change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이기동(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 Machiavelli(2005), Kang & Moon Tr., *IL Principe*, Kkachi. (마키아벨리(2005), 강정인 문지영 역, 군주론, 까치)
 18.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1),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Physics Stroll, Jongpil Lee (네이버 지식백과(2021), 열역학 제2법칙, 물리산책, 이종필).
 19. Plato(2019), Chun, B. H. Tr., *Politeia*, Soop, (플라톤(2019), 천병희 역, 국가, 숲)
 20. Plutarchos (2019), Lee, S. K. Tr., *Bioi Paralleloi*, Modern Intellect. (플루타르코스(2019), 이성규 역,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 I, II, 현대지성)
 21. Pung, W. R.(2017), Park, S. K. Tr., The History of China Philosophy, Kkachi. (풍우란(2017),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22. Radbruch, Gustav(1985), Choi, J. K. Tr., *Rechtsphilosophie*, Samyeongsaa. (라드브루흐 (1985),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23. Samachun(2017), So, J. S. Tr., *Samachun Saki 56*, Modern Intellect. (사마천(2017), 소준섭 역, 사마천 사기 56, 현대지성)
 24. Tocqueville, Alexis de(1997), Lim, H. S. & Park, Z. D. Tr., *De la democratie en Amerique*, Hangilsa (토크빌(1997), 임효선&박지동 역, 미국의 민주주의, 한길사)

A Servicism Model for A New Democracy

Hyunsoo Kim¹⁾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new model for popular democracy in the modern society. The problem is exacerbated as the original model of democracy, isonomia, has faded and modern democracy is operated as a democracy in which the masses rule. Democracy is exposing a bigger problem due to the economic inequality caused by the majority rule and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Popular democracy, in which all the masses are equally qualified as sovereigns, is a structure in which cunning politicians can easily seize power if the voters are not wise. Isonomia is a system in which free people who solve economic problems on their own and have honesty, courage, dedication, sacrifice and sincerity set laws with the same qualifications, and keep the laws themselves, is a system that depends heavily on the conscience and virtue of free people. Modern popular democracy embodies the absolute equality of the sovereign regardless of economic power, but without the spirit of sacrifice and dedication to the community, those who can win popularity by wrapping themselves up as if they are sacrificial and capable people may seize power. This study presents a service-oriented democracy as a system that can maintain the merits of modern popular democracy while embodying the essence of isonomia. The system was implemented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s for virtue, such as honesty, courage, sacrifice, integrity, etc., fair to all regardless of wealth. Human imperfections have been supplement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ssumption about the nature of the sovereign and public officials' agent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winner-take-allism problem was solved. This study proved that both the philosophy of Isonomia and the merits of Democracy can be realized through service-oriented democracy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 of humanity and the philosophy of service. Service-oriented democracy can be called revision democracy.

Keywords: Servicism, Democracy, Service Nature, Hwajaeng Taeguk, Morality

1)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is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